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선물들...

만민 성도에게 날아와 앉아 행복을 주는 신기한 잠자리 소식과 놀라운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성도 간증을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_ 팔복 시리즈 1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악이 없고 아무 욕심도 없이 자기를 비우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 하면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다.

03 새로 나온 책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청소년 바이블 스타디 네 번째로, 이 책은 진리 자체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을 소개한다.

04 간증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의 주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차태문 형제와 파키스탄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카라맛 일야스 목사 간증.

# 만민뉴스

제596호 2013년 8월 2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The power of God

##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착한 잠자리들

'2013 만민 하계수련회가 열린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한다. "만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 권능을 풍성히 나타내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무장에 힘쓰며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이라. 더욱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목자의 권능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니 어찌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는가.

2013년 8월 초,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린 만민 하계수련회에서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병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며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다. 수많은 간증자 가운데 최장암을 치료받은 **대구만민교회 전재수 집사(67)**를 만나봤다.

**조직폭력배였던 간증의 주인공**

"저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 조직폭력배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청송교도소 수감생활 중 유명 폭력 조직 두목 고(故) 김태춘 씨가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하기에 믿게 됐지요."



출소 후 그는 2004년 7월부터 사촌 동생의 권유로 대구만민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십일조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노력하니 몇 년 전부터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꿈에 나타나 용기를 주므로 하나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창자가 끊어질 듯한 복부 통증이 찾아왔다. 2013년 7월, 병원을 찾았더니 최장암 3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날 자신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죄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

**지난날을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받았더니**

8월 초, 만민 하계수련회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함께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사모함으로 참석했다.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웠다.

"첫날 교육 때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심한 통증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어요. 간증하려고 단에 올라갔는데 이미 많은 간증자가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바람에 제 자리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당회장님께서 제게 입을 벌려 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당회장님께서 제 입에 손을 넣으시는 것이었지요."

**하나님 권능으로 최장암을 즉시 치료받아**

꿈에서 깬 그는 치료의 확신을 갖고 지난 8월 12일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어찌 된 일인지 암 덩어리가 작아져서 거의 없네요." 하면서 약을 복용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약은 전혀 먹지 않았고 수련회를 참석해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 받고 치료받은 것입니다."라고 간증했다.

그러자 의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네요."라며 놀라워했다. 이처럼 큰 은혜를 입은 전재수 집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 소망까지 주신 줄으신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고 있다.

**"잠자리가 날아와 물에 친근하게 앉아요"** 잠자리는 날개를 가진 곤충류로 약 2만 8천 개의 날개가 모인 한 쌍의 겹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겹눈의 장점은 날개들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머리를 돌리지 않아도 위아래, 앞뒤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m 떨어진 곳에서도 움직이는 물체를 볼 수 있으며, 최고 37m 거리에 있는 물체도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다가가면 금방 피해 달아나 웬만해서는 잡기 어려운 곤충이다. 하지만 매년 여름이면 국내외 만민 성도들에게 잠자리들이 친근히 날아와 앉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성경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던 중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기록이 나온다.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성도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잠자리를 통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참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3)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고 명예와 권세가 있으며, 자녀들이 효도하고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참되고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사후의 세계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 해도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잘 사는 것에만 삶의 목적을 두고 있으니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유명한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으로서 팔복을 소유하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 1.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질이 없어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 자존심이나 교만, 이기심, 욕심 등 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악이 없

는 선한 마음으로, 아무 욕심이 없어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중심 상태'를 말하지요.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을 채울 영의 것을 사모하기에 전도하면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구원받기도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부유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업이 바쁘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여가활동을 해야 하니까 등의 핑계를 대며 나중에 한가해지면 믿겠다고 합니다. 눈과 마음에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로 가득하니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를 보여 주어도 믿으려 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팔복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 2. 영원한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심령이 부유한 부자와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잔치를 베풀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았기에 마음까지 부요해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자신의 상처를 개가 핥는 불쌍한 삶을 살아오지만 심령이 가난했기에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죽은 후에는 형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반면 부자는 '아랫뒀'에 떨어져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받으며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 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잔치를 즐겼던 부자와 비록 구걸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거지 나사로 중에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지 나사로이지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거지와 같이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에서는 영생과 영벌이 있기에,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머리 되는 복 등 만사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복, 곧 천국을 주시지요.

## 3.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려면

첫째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람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람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혹여 마음 안에 세상 것들로 채워졌다면 하나님 사랑과 천국 소망으로 온전히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의 속성이지요. 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미움, 혐기, 욕심, 음욕, 시기, 교만 등 온갖 악이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집니다. 가령, 초신자가 술을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술을 마시고 싶다는 마음을 온전히 버리지 않았기에 술자리에 가면 마시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이 사람을 충동해 술을 마시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실제로 마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욕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을 말합니다. 한 번 스쳐 지나간 것이나 아무 의미 없이 보고 들었어도 느낌으로 입력돼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또 보고 싶고 취하고 싶어지지요. 가령, 음란물을 한 번 봤는데 그것이 공부를 방해하며 또 보고 싶어집니다. 이처럼 안목의 정욕은 내 안에 비진리를 발동시킴으로써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러니 진리가 아니면 보거나 듣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는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람을 버려야 합니다. 이생의 자람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좇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는 속성입니다. 이생의 자람이 있으면 자신이 가진 것, 부, 명예, 권세, 재능, 외모, 지식 등을 자랑하며 드러내고 싶어하지요. 또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교만이 나옵니다. 이는 가난한 심령인 겸손, 희생, 사랑과는 거리가 먼 마음이 부유한 모습이지요. 그러니 천국의 아름다움과 소망은 없고 이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 둘째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고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은 단순하고 순수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알려 주면 쉽게 받아들이고 자존심이나 자기 고집이 없어 지적이나 권면을 해도 쉽게 인정하지요. 그러나 세상에 물들어 순수함이 사라지면 죄를 범하면서도 무감각해지고 지적이나 권면을 받아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기도 하지요.

또한 영적인 어린아이는 선악 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선한 것을 보면 쉽게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는 반면 악은 몹서리치도록 싫어하지요.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시면 마음에서부터 싫어지고 어찌하든 범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악을 발견해 불같은 기도를 통해 죄악을 벗어 버림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녀가 되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와 명예, 건강 등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마다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별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이재록 목사 청소년 바이블 스터디 4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빛의 자녀였으나 죄로 인해 하나님 형상을 잃고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한 어둠의 자녀로 살게 됐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는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원수 마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신다. 여기서 ‘몸의 행실’이란 도둑질이나 폭력 등 명백한 죄뿐만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모든 행실을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해 몸의 행실을 다스려야 할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닦아가면 된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으셨으며 무엇을 보고 듣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 자세는 어떠하셨는지, 크게 여섯 가지 분야로 소개하고 있다.

- **예수님의 생각** | 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생각이셨다. 또한 영혼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한 생각,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 십리를 이루기 위한 생각, 승천 후 남겨질 제자들을 진리로 가르치기 위한 생각이셨다.
- **예수님의 마음** | 맑고 깨끗하고 청아해 순결하고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성결한 마음, 온전한 선과 사랑의 마음이셨다.
- **예수님의 눈** |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눈, 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 상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셨다.
- **예수님의 귀** | 판단, 정죄 등의 악한 말을 들어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수용하셨으며, 들어야 할 말과 흘려버려야 할 말을 진리로 분별해 들으셨다.
- **예수님의 입** | 선과 사랑의 말, 생명을 주는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셨다. 무익한 말은 전혀 없으시며 상대를 진리로 가르쳐 주신 뒤 상대가 깨닫지 못한다 해도 다투거나 변론하지 않으셨다.
- **예수님의 자세** | 걸음걸이나 몸가짐에 흠이 없으셨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며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이셨다.

### 우리가 다스려야 할 생각

어떤 일을 만날 때 생각을 멈추고 내 생각이 선인지, 악인지, 그 안에 미움이나 서운함 등의 비진리의 감정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비진리의 생각을 선과 진리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가 옳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진리의 생각을 진리로 신속히 바꿀 수 있다.

### 우리가 다스려야 할 마음

하나님 말씀에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므로 마음속 비진리를 다 뽑아내어 마음 발을 옥도로 개간해야 한다. 동시에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행하라’는 것은 행함으로 선과 사랑을 채워나가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나의 노력 위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

### 우리가 다스려야 할 눈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돼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이다. 우리가 진리의 눈을 가지려면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고 선한 것, 진리의 것을 바라보고 행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도 점점 진리로 채워진다.

###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귀

선한 말과 진리의 말만 경청하고 악한 말과 수군수군하는 말,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말은 멀리하며 한 귀로 흘려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의 인상이나 옷차림 등 외모를 보고 선입관을 갖는 등의 편견을 버려야 하며,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리로 보아야 한다.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확한 진리에 비춰 범사에 분별하며, 그 사람의 열매 곧 말이나 행동을 통해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

### 우리가 다스려야 할 입

무익한 말을 버리기 위해 말하기 전 잠시 멈추고, 하려는 말이 선인지 진실인지 생각해 보며 그 말이 진실일지라도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이라도 입으로 내었을 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 우리가 다스려야 할 자세

우리가 지켜야 할 매너나 에티켓, 공중도덕의 기본 바탕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을 닮아가면 최고의 교양을 갖출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8.25~8.31  
August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은영 3, 4
- 3차 영혼육 교육 11-14
- 일곱교회 17-21
- 선 13-17
- 창세기 강해 64-68
- 요한일서 강해 12-16
- 믿음을 처방하시니 20

GCN TV 설교

- 육과 영 1-4 (이수진 목사)
- 능력 2 (이희선 목사)
- 의와 틀 (신동초 목사)
- 자기 점검 (신동초 목사)
- 생명수 (박해상 집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9-10 (정구영 목사)

2013 교육 및 행사

- 2013 기관장 교육 1, 2
- 2013 아동예술제
- 2013 아동 세미나 (이수진 목사)

해외성회 시리즈

- 독일연합대상회 2
- 에스토니아연합성회 종합편

찬양 프로그램

- 찬양과 경배 (3) 68-70, 73, 74, 76
- GCN 금요찬양 스페셜 4-8, 28
- 만민 찬양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 “2013 멕시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차태문 형제 (2청년선교회)



저는 여섯 살 때 태권도를 시작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무명선수였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 받아주는 대학도 없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나사렛대학교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만민중앙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최고의 선수가 돼야 한다고 늘 당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대학 입학 후 저는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 체계적인 훈련으로 실력이 향상됐고 신앙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험 때마다 어머니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셨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해 주셨지요. 저는 교회 ARS(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시험에 출전해 1학년 때부터 10여 개의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58kg급 32강부터 시작해 결승까지 오른 저는 최종 2위로 선발됐지요. 어머니는 “당회장님께서 국가대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대로 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뒤 저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세 명의 선수가 평가전을 거쳐 한 명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4월, 세 차례 평가전이 시작됐습니다. 1차 평가전을 앞두고 당회장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받은 뒤 1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지 못하고 출전한 2차 평가전에서는 2위에 그쳤지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3차 평가전 때에는 기도를 받고 출전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성적 1위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티켓을 딸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기도의 위력을 체험한 저는 멕시코에서 열리는 2013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출전에 앞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웬지 금메달을 딸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요. 남자 58kg급 16강, 8강에서 각각 12점차 이상으로 이기는

등 좋은 성적으로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란 선수와 겨룬 결승전에서는 2라운드까지 종합점수로 지고 있었지요. 마지막 3라운드를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고 왔습니다. 지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하시며, 용기 있고 민첩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실력 발휘를 하게 하옵소서. 제 길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보장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가전에서도 당회장님께 기도받고 출전해 1차, 3차에서 역전승을 거둔 바 있기에 이번에도 역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요. 결국 9대 8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금메달을 획득해 태권도 종주국의 명예를 빛내고 학교측에 세계선수권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드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승용 감독님을 비롯해 마음 써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권능의 기도로 축복해 주신 당회장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 “파키스탄에도 성령의 역사로 행복합니다” 카라맛 일야스 목사 (파키스탄 CCCI 부대표)

2000년 ‘이재록 목사 초청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회교권 기독교 역사상 전무한 초교파 대규모 성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성회 조직위원으로 홍보에 힘썼지요. 성회 후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 됐으며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전만민교회 담임 길태식 목사의 지속적인 선교로 성결의 복음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요.

4개월 전부터는 길태식 목사의 후원으로 교회에 GCN 방송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와 다니엘철야 기도회, 금요철야예배, 주일 저녁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시공을 초월한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당뇨, 종양, 통증 등을 치료 받고 시력이 회복됐으며 응답과 축복이 넘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변한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통해서도 치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무안단물을 바르고 시력이 좋아져 지

금은 안경 없이도 성경을 읽으십니다.

지난 8월 초에는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날 저녁 교육시간, 야외 교육장에 비가 오기 시작하자 이재록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담대히 비가 멎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잠시 후 두터운 먹구름이 물러가고 비가 멎었으며 맑은 하늘이 보이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이때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고, 불같이 기도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다짐했지요. 저는 윌간지(Sada-i-Aqleat) 편집장으로서 앞으로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권능 등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결의 복음을 통해 파키스탄 기독교계를 변화시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벽성 8/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북 괴성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2278-0641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미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거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침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아주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흥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익산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